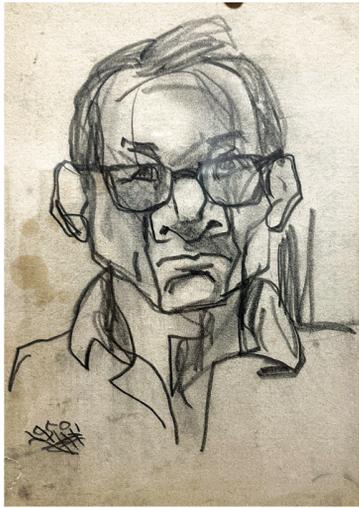


# 시時 공空 동同 행行

# 남도 미술의 화맥과 숨결, 세대를 잇다



박광진 자화상(1928년 작품)



배동신 화백의 30세 무렵의 자화상

의재·배동신·임직순·김대원 등  
남도화단 거장·현대작가 특별전  
3월 3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  
역사적 맥락·동시대적 흐름 조망

오늘의 남도 화단은 선대 거장들로부터 후세대  
에까지 이어져온 고유한 화맥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남도 미술의 고유한 정신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전승되고 변주돼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을  
초월한 창조적 계승은 남도미술을 풍성하게 했으  
며 내일의 화단을 새로운 모습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 미술의 역사적 맥락과 동시대적 흐름을 조  
망하는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구 동명동 수하갤러리(대표 장하경)는 남도 화  
단의 거장과 현대 작가를 잇는 특별 기획전 '시공동  
행'(時空同行)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3월 3일까지 펼쳐지는 이  
번 전시는 의재 허백련부터 현대 중견까지 아우르  
고 있어 남도 미술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 등을 한눈  
에 가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공동행'(時空同行)이라는 의미는  
작금의 고유의 명절 설과 연계해 톡아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번 기획전은 수하갤러리가 오랜 기간 수집해  
온 소장품 가운데 남도 화단의 기틀을 세운 선대  
거장들의 미공개 작품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에서 만나는 박광진 화백(1902-미상)의  
작품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서양  
화단의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 박 화백은 1928년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당대 근대 서양화의  
기법을 우리나라 서양화단에 이식한 주역으로 평  
가받는다. 그의 작품은 사료적 가치 외에도 예술  
적 감수성이 태동하던 시기의 숨결을 담고 있어 당  
대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일본 국립도쿄예술대학(구 도쿄미술학  
교)에 그의 자화상이 보관돼 있지만, 국내에 유작



의재 허백련의 산수화 작품

으로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  
이 유일하다.

북포 유달산과 천주교회를 그린 남도의 풍경화  
도 주목할 만하다. 박광진은 1937년 우리나라 최  
초 미술교육기관인 조선미술원에서 의재 허백련  
과 함께 지도교사로 활동했다. 진도 출신의 의재  
허백련과 개성 출신의 박광진은 각각 동양화부와  
서양화부의 지도교사로 임명돼 우리 미술의 미래  
를 함께 일궈냈다.

서양화가였던 박 화백은 우리 고유의 필묵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 1942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서양화가 수묵화전'을 개최할 만큼 동서양의 경  
계를 허무는 실험적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89년  
전 두 거장이 나누었던 예술적 교감과 '동행'의 가  
치가 이번 전시를 통해 고스란히 재현된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전시는 라인업에 있어서도 화려하다. 남도

문인화의 거목 의재 허백련(1891-1977)을 필두  
로 소암 현중화(1907-1997), 배동신(1920-  
2008), 임직순(1921-1996), 아산 조방원(1926-  
2014) 등 지역 미술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마스  
터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다.

이러한 선대 거장들의 화맥은 김대원, 진원장,  
최영훈 등 현재 남도 화단을 이끌고 있는 중견·중  
추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과거와 현재의  
작품을 나란히 배치해 남도 미술의 고유한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장하경 대표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남도 거장들  
의 명작들을 매개로 남도 미술, 나아가 우리 미술  
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오늘의 남도  
화단이 있기까지의 고유한 화맥과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337건 선정

### 24·26일 선정단체·예술인 워크숍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문화예술지  
원사업에 총 337건을 선정했다.

1035건이 응모한 이번 공모에는 문학·시각·공  
연 등 전 분야에서 참여가 이뤄졌으며 장르 다양성  
과 창작의 실험성,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워크숍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순천 전라남도 동  
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 오는 26일 오후 2시 무  
안 남악북합주민센터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정 지원 결정액은 21억 3000만 원이다.  
예술활동지원 313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7건, 창작공간지원 6건, 자율기획형 5건,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 6건이다.

김은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 예술가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  
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단  
은 향후에도 지역의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이 창작  
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기준'을 비롯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교육', '저작권 교육 및 상담' 등 실  
무 위주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공모 선정 결과와 워크숍 세부 일정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해 남악에서 진행된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 워크숍 장면. <전남문화재단>

## 소리와 건반으로 채우는 무대

### '국악 고영열 광주 콘서트' 3월 8일 카페뮤지엄CM

피아노 앞에 앉아 스스로 북을 대신하고, 한 몸  
으로 창자(唱者)와 고수(鼓手)의 역할을 오가는  
소리꾼. '피아노 병창'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소리  
의 지평을 넓혀온 고영열이 작지만 밀도 높은 무대  
로 관객을 만난다.

'국악 고영열 전국 투어 미니콘서트'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카페뮤지엄CM에서 열린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을 잇는 전국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오리진그룹브 주최.

국창 임방울의 이름을 딴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서 태어난 고영열은 전통을 바탕으로 동시대 감각  
을 더해 판소리를 변주해온 예인이다. 클래식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국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불후의 명곡', '팬텀싱어'  
등 방송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공연은 40석 한정으로 진행된다. 마이크와



소리꾼 고영열

대형 음향 장비 없이 목소리와 피아노만으로 70여  
분간 무대를 채운다. 관객은 공간의 울림 속에서  
소리의 질감과 호흡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된다.  
'사랑가', '꽃타령' 등 전통 레퍼토리와 자작곡 등  
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영열은 "최고의 음향은 음향을 하지 않는 것

이라는 생각으로 8년째 미니콘서트를 이어오고 있  
다"며 "이번 공연에도 세월의 이야기와 제 마음을  
담아, 그 힘을 안고 관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관람료 5만 5000원, 네이버예약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우수 지역주관처 선정

### 한국문예위 위원장상·시상금

광주문화재단이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역주관처로 선정  
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과 시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에 경제  
적·사회적 제약이 있는 시민에게 문화예술·체육  
관광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  
원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관처를 대  
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4개  
기관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높은 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신규 가맹점 유치 확대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2025년 문화누리카드 전  
액 미사용자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3.51%로 낮  
춰,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우수 지  
역주관처 선정은 재단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문화복지 사  
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화순에 모이는 청년 뮤지션들... '아트포 재즈워크' 열려요

### 23~28일 재즈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드러머 잭 캘버리 등 참여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 재즈 뮤지션들이 해외 네  
트워킹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 화순에서 열린다.

음악교육 단체 아트포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  
지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아트포·두루아트·화순  
본향교회 은혜홀 등에서 '아트포 재즈워크(Art4  
Jazz Week)'를 개최한다. 공연과 워크숍, 협업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연주자들  
의 성장과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무대는 26일 오후 4시 화순하

니움 만연홀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서트'다.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수학 중인 드러머 잭 캘버리  
가 참여해 아트포앙상블과 두루아트 앙상블, 투두  
앙상블 멤버들과 함께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 서  
로 다른 배경의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  
추며 재즈 특유의 즉흥성과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  
다.

이어 27일에는 국내 아티스트 워크숍과 네트워  
킹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8일 오후 4시에는 두루  
아트 베이스드 임재원의 '굿데이 콘서트'가 열

려 재즈워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밖에도 23일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 세션,  
24일 재즈 앙상블 워크숍, 25일 리드 워크숍 등 행  
사 기간 내내 공연 준비와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트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트포 관계자는 "재즈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음악"이라며 "이번 재즈워크가  
지역 청년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GUITARIST YUNJU SHIN

SENGSOHO WRITER SOUMI YU

DRUMMER WOLU SHIN

DRUMMER JACK CALVERLEY

BASSIST MIN, BEONG CHD

BASSIST JAEVON LIM